이혜훈이라는 '대홍수'

광화문·뷰

어수웅
논설위원

요즘 넷플릭스 최대 화제작은 한국 영화 '대홍수'다. 공개 직후 일주일 넘게 세계 71개국 1위를 기록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차트도 석권했다. 성적만으론 한국 영화 전인미답의 기록이다.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난 기분은 참담했다. 나만 속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 유일한 위안이랄까. 10점 만점에 3~4점대의 평점 폭우가, "내 시간을 돌려 달라"는 관람평이 쏟아지고 있었다.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의 신선도 지수는 30%대 수준. 한마디로 '썩은 토마토' 취급을 받은 것이다. 흥행은 1위인데, 평점은 바닥. 둘 사이의 간극이 이렇게 벌어진 작품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혹평이 자자한데 어떻게 1등인가. 비결은 넷플릭스가 바꾼 '시청수(Views)' 알고리즘에 있다. '총 시청 시간'이 중요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총 시청 시간을 작품 상영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 순위를 매긴다. '대홍수'는 이 허점을 영리하게 파고들었다. 제목처럼 영화는 초반 20분 동안 재난 영화 특유의 압도적 스펙터클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일단 클릭한 뒤 그만큼 붙들어 두면 '글로벌 1위'의 월계관을 거머쥐는 생태계 빈틈을 정확히 찌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영화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미궁으로 빠져든다. 재난 영화로 시작했지만 SF와 모성 스릴러와 휴먼 드라마 사이에서 길을 잃는다. 영화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한국 영화 투자를 중단한다면 이 작품 때문일 것"이라고까지 혹평했다.

'대홍수'의 흥행 공식을 보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파격 발탁된 이혜훈 후보자를 떠올렸다. 임명 발표 직후 거의 모든 미디어는 이 뉴스를 1순위로 다뤘다. 국민의힘 진영의 '배신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 측의 '파격 탕평'이라는 자극적 키워드가 충돌하며 알고리즘을 지배한 것이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 사이에서 그의 갑질이 워낙 악명 높았다지만, 일반 국민은 통합이라는 키워드로 이 뉴스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지배한 초반 연관 검색어도 그랬다. 박사 학위·진정성·기대·희망…. 하지만 '최고 시청률'을 찍은 첫날이 지나자, 이혜훈이라는 영화는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파도 파도 미담'이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추문과 잡음의 연속이다. 나이 어린 인턴 직원에게 퍼부은 갑질, 남편 명의의 영종도 땅 투기, 아들 셋 명의로 투자한 고리대금업, 비상장 주식 투자로 늘어난 110억…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에,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의 재산 증식이다. 재난 영화인 줄 알고 선택한 '대홍수'가 난해한 장르물로 돌변하듯, 관객들은 이제 장르적 배신감을 느낀다. 특정 진영의 경제 브레인에서 상대 진영의 장관직까지 거머쥐려는 그의 행보는 예술 비평 용어로 '신뢰할 수 없는 화자' 그 자체다. 이재명 정부가 중도 확장을 노리고 선거 전략을 펼쳤다면, 명백한 헛발질이다. 또한 그의 논란 대부분이 보수 정당 의원 시절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 파격인 줄 알았지만 갈수록 최악
> 흥행 1위·평점 꼴찌 '대홍수' 같아
> 넷플릭스 영화야 끄면 끝나지만
> 신뢰 잃은 정치는 폐허만 남아

지금 한국 정치는 권력 획득과 강성 팬덤의 '조회 수'라는 지표에만 집착하다 '국민의 신뢰'라는 작품성을 완전히 놓쳐버렸다. 관객은 없고 조회 수만 남은 드라마, 평점이 바닥난 정치가 맞이할 결말은 자명하다. 넷플릭스 영화는 끄면 그만이지만 정치는 그럴 수 없다. 정치는 흥행이 아니라 신뢰로 증명해야 하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넷플릭스의 투자 철회를 걱정하는 친구의 우려처럼, 국민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영구히 거둬들일까 두려울 따름이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14]

어른이 다시 아이로

어린 시절 식탁 아래로 기어들어 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었다. 웅크리고 앉은 나를 둘러싼 식탁과 의자의 육중한 다리들은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성벽 같았다. 상판을 통해 웅웅대며 들려오는 어른들의 대화 소리는 세상에 없는 자장가였다. 내가 부모가 된 다음에는 아이들이 흘린 밥알을 줍는 게 아니면 굳이 식탁 아래로 들어갈 일이 없었다. 그나마도 무릎을 꿇은 채 어두컴컴한 식탁 아래서 바닥을 훑으려면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났다. 어린 시절 그토록 안온했던 '식탁 아래'는 어느 순간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미술관에서 '식탁 아래'와 마주칠 때까지는.

로버트 테리엔, 식탁 아래, 1994년, 나무와 금속, 에나멜, 297.2×792.5×548.6㎝, 로스앤젤레스 더브로드 미술관 소장.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미국 조각가 로버트 테리엔(Robert Therrien·1947~2019)의 '식탁 아래'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더브로드 미술관'이 개관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같은 전시장에서 관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식탁 아래로. 높이 3m, 가로 8m에 달하는 거대한 식탁과 의자들은 관객 10여 명이 한꺼번에 아래로 들어가도 넉넉하다.

테리엔은 이처럼 식탁, 의자, 접시, 혹은 냄비와 프라이팬이 가득 들어 있는 찬장까지 여느 가정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일상의 사물을 대단히 정교하고 세밀하게 재현하되, 과장된 크기로 확대해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만들어 낸다. 그의 전시장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거인국에 도착한 걸리버, 혹은 이상한 나라의 음료를 마셔 버린 앨리스가 된다.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어두운 식탁 아래서 웅크리고 있던 어린 시절 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잠시나마 '어른'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친절한 미술의 선물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說

세계 질서 격변 속 '中 편에 서라' 요구한 시진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국권이 피탈됐던 시기에 국권 회복을 위해 손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라고 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은 민족적 희생을 치르고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승리를 얻었다"며 "손잡고 2차 대전 승리 성과를 수호하자"고 했다.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일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중국 편에 서라는 뜻이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더 혼란해졌다"며 "양국은 세계 평화에 긍정적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 안정을 넘어 '세계 평화'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이날 아일랜드 총리를 만나서도 "오늘날 세계는 일방적이고 패권적 행태가 국제 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가 군사 작전으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다자주의' 강조도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세계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열렸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관세 전쟁뿐 아니라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근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장악력을 강조했는데 베네수엘라는 대표적인 반미, 친중 국가로 꼽힌다. 베네수엘라는 석유의 80% 이상을 중국에 수출해 세입의 90% 이상을 충당한다. 마두로 축출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한국에 이로울 게 없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국이 남북 대화를 중재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안보실장은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군사 작전 직후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쐈다. 4일엔 극초음속 미사일도 발사했는데 김정은은 "핵 고도화가 왜 필요한가는 최근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했다. 마두로 체포가 김정은에겐 충격이자 공포일 것이다. 핵을 더 끌어안으려 할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은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슬그머니 지웠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썼다.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의 강도를 높였다. 강대국이 '힘'을 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일본도 방문한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이 우리 외교·안보의 기본인데 시진핑은 '중국 편에 서라'고 한다. 균형과 냉정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돈 공천 의혹 與 시의원 출국, 경찰이 방조한 것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돈 공천'과 당 차원의 탄원서 묵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곧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며 2020년 총선 때 자신은 총선 경쟁자였지 청탁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수수 의혹과 자신의 묵인 의혹도 부인하면서 "제명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탈당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제 이 의혹은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돈 공천 의혹을 넘어 민주당 전체로 번지고 있다.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에 김병기 전 의원의 3000만원 수수 탄원서를 당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었던 김현지 보좌관(현 청와대 1부속실장)에게 전달했지만 이후에 무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믿고 탄원서를 건넸는데 무마돼서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 문제를 당시 수석 최고위원이던 정청래 현 대표에게 말했더니 '나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지만 정황이 너무 많다.

강선우 의원은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돈을 건넨 의혹을 받은 인사는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 자체 감찰이나 경찰의 '수사 흉내'로는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사건을 개인 문제라며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 탄원서 무마 의혹은 권력 핵심부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한계는 명확하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공천 돈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수진 전 의원에 대해 전화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의 1억원 수수 의혹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의혹 당사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기다.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민주당 시의원은 녹취록 공개 직후 자녀를 만나겠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한다. 경찰이 핵심 인물에 대한 출국 금지 같은 수사의 초보적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이 사실상 출국을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경찰이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의혹을 덮으려 한다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특검 수사의 불가피성이 명확해지고 있다.

美·유럽과 반대 '전기차 강제', 대책 갖고 급발진하나

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수소차로 못 채우면 대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판매 기업에 물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신차 중 전기차 등의 비율이 13.5%인데, 5년 만에 50%로 늘리는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과속 규제다. 당장 올해 목표치가 28%인데, 현대·기아차의 예상 벌금만 1300억원이다.

이런 급진적인 내연차 폐기 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다. 미국과 유럽(EU)은 최근 전기차 전환 목표를 잇달아 늦추고 내연차와 공존을 모색 중이다. 자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막기위한 생존 전략이다. 국내 자동차 산업은 협력 업체와 정비·판매망을 포함, 고용만 약 190만 명이다. 반도체 산업(약 18만 명)보다 훨씬 큰 후방 효과를 가진 핵심 산업이다. 세계 최고 경쟁력인 우리 자동차 산업이 왜 환경 탈레반들의 과속 규제에 떠밀려가야 하나.

전기차뿐만이 아니다. 22일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너무 경직돼 있어 국내 벤처 업계의 80%가 "싹을 자르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EU와 달리 우리 정부는 적응 기간, 유예 기간 없이 법을 밀어붙이며 의료·교육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전반을 '고영향 AI'로 묶어 보고 의무를 지우려 한다. 미국과 일본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미국과 중국은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 미·중은 '탈석탄 동맹'에서도 빠졌는데 우리는 앞장서 가입했다. 남들은 실리적인 속도 조절에 나서는데 우리만 앞장서 절벽으로 달리는 형국이다. 미·중에 비하면 매우 작은 비중인 우리가 온갖 피해와 부작용을 무릅써서 얻는 게 무언가.

문재인 정부의 탈레반적인 탈원전 정책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는지 모두 보았다. 글로벌 기준보다 앞선 환경 규제와 정책 규제는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이들을 해외로 내모는 자해 행위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은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합리적인 속도와 과정을 모색하며 가야 한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선거 위한 보수 대통합》은 죽는 길

도려내라! 배신의 DNA … 유승민-김무성부터 한동훈까지

뉴데일리 newdaily.co.kr

우파 정당 대통령 2명 중도 하차 뒤엔 배신의 DNA가
탄핵 부역 세력 끊어내는 게 개혁 첫걸음
황교안의 실책 되풀이하면 안 돼

◀ 선거철이 다가오면 숨어 있던 《달콤한 유혹》이 솟아 나온다. 구닥다리 배신의 정치인 김무성이 TV에 얼굴을 내밀어 《대통합 타령》을 한다. 새해 첫날 오세훈도 같은 타령 첫 곡조를 읊조렸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황교안은 자신의 실수를 《천추의 한》이라고 했다. ⓒ 챗GPT

오세훈 이혜훈의 중도팔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날부터 국힘 당원들과 자유 우파 시민들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중도팔이 정치인》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과의 통합-연대도 주장했다. ***오세훈***은 ***박근혜 사기 탄핵***에 찬성한 ***《탈당파》***. 윤석열 탄핵 정변 때도 그랬다.

기획예산처 장관에 당을 배반한 ***이혜훈***도 ***《배신의 전력》***이 만만찮다. 공천이 당선인 서울 서초갑에서 세 차례나 금배지를 달았다. 누릴 것 다 누린 **그는 *박근혜 탄핵*** 때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오세훈 권성동 하태경 김성태*** 등과 함께 탈당했다.

배신→탈당→복당→봉합, 또 배신

최근 10년간 ***《배신의 DNA》***가 판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 정변 탈당파들은 2020년 총선을 명분으로 복당했다. ***탈당파와의 합당에도 불구, 선거에서 패배***하자 **황교안**은 대표에서 물러났다. 반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김종인***은 오히려 당권을 장악,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다. *정강에 《기본소득》이라는 황당한 개념*도 넣었다. 돌아온 배신자들은 불이익은커녕 ***김성태***는 원내대표, ***《박근혜 키즈》*** 중 대표적 배신자 ***이준석***은 당 대표, ***주호영 권성동***도 원내대표를 꿰찼다.

배신의 역사 계승자 한동훈

《배신의 역사》는 계속됐다. 2024년 총선에서 전권을 누렸던 ***한동훈***은 패배로 물러났다가 3개월 만에 당 대표로 복귀했다. 그는 집권당 대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당 배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댔다. ***《당원게시판 여론조작 게이트》***도 그중 하나. 대표가 그러니 ***윤석열 탄핵 찬성 배신자들이 속출***했다. ***우파 정당 배출 대통령 2명의 중도 하차***에 따른 고통과 비극은 진행 중이다.

배신자들과 손잡으라는 압박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지도부에게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과 손을 잡으라***는 압박이 또 나오고 있다. 2020년 총선과 마찬가지로 ***탄핵 부역 세력이 중심***이다.

장 대표는 ***오세훈***이 언급한 ***《보수 대통합》***과 관련, **"당내 통합 걸림돌이 해결되지 않는데도 당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대표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연대나 통합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다. ***묻지마 연대-통합***에 선을 그은 것.

이와 관련, **황교안**의 ***《천추의 한(恨)/당을 망가뜨리는 암덩어리》***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그는 ***《선거를 위한 대통합》***을 받아들였다. ***유승민 이준석*** 등 **탈당파**와 통합했다.

황교안은 훗날 이를 사과했다. *"총선을 앞두고 통합을 추진한 게 《천추의 한》이 됐다. 그들에게 자리를 주느라, 당에 남아 헌신했던 동지들을 챙기지 못했다. 그 결과 당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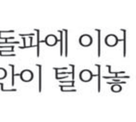
배신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황교안은 ***유승민 이준석*** 등의 복당 후 행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그들은 종북좌파와의 싸움에서 한 일이 없다.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면서 분열의 정치로 민주당을 거들어주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고 어려울 때 당을 버렸던 사람들, 배신으로 당을 망가뜨리고 우파를 분열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하고 있다.* 이런 《*암덩어리*》는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 *탈당파 복당의 폐해와 해악*에 대한 뼈아픈 심경의 토로이다.

배신자의 상징, 유승민 이준석 한동훈

최근 국힘 안팎에서는 **한동훈**의 잘못을 불문에 붙이라고 한다. ***《썩어도 단단히 썩은 사과》 이준석***과의 연대도 거론한다.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일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배신의 DNA》*를 도려내는 일**이다. 저질 극좌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전사 집단》**으로 당을 개혁해야 한다. ***한동훈-이준석-유승민****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배신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다.

국힘은 활기를 찾고 있다. 책임당원 100만 돌파에 이어 110만을 향해 가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이 털어놓은 ***《천추의 한》***을 명심하길 바란다.



권순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6년 1월 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90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